

江原觀光 開發戰略研究

A strategy on the Kangweon Tourism Development

全 東 煥*
(Tong-whan, Chun)

목 차

I. 서 론

1. 問題의提起
2. 研究方法 및 範圍

II. 본 론

1. 江原觀光에 관한 考察
 - 1) 既存의 觀光開發政策
2. 江原觀光 開發方向
 - 1) 社會間接施設擴充
 - 2) 多様な 觀光開發
3. 江原觀光 開發戰略
 - 1) 巨視的 開發戰略
 - 2) 微視的 開發戰略
 - ① 觀光 需要 戰略
 - ② 觀光企業 發展戰略
 - ③ 地域別 觀光開發戰略

III. 결 론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1960년이후 우리나라가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시작한 관광산업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착한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70년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80년대의 도약기를 거쳐 90년대에는 모든 국민들이 생활화 하다시피한 성장기에 접어 들었다. 불과 30년사이에 관광산업이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확산 되기 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나라 관광은 성숙기에 접어 들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예측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속도와 국민소득중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서 볼수도 있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국민관광과 해외관광, 그리고 국제관광의 놀랄만한 증가추세와 5년단위 週期로 나타나는 사이클의 큰 변화에서도 이를 뒷바침 해주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의 변화는 세계화 추세에 밀려 다소 주춤하고는 있으나 계절적, 추세적변동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때 이 또한 완전한 성숙기에 이를 전망이다.

탈 공산화 이후에 나타난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은 관광을 통한 活 經濟化, 개방화를 가속화 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그들의 전략산업으로 전진배치하고 있음을 볼때 역시 관광산업은 경제초기에서 부터 고도소비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천후로 필요로 하는 산업이 아닐수 없다.

이와같이 경쟁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개방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W T O 體制 이후에 나타난 세계시장의 개방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사이에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선진국은 선진국 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지역간 또는 경제단위로 불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전 세계가 이해집단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도 세계속에 중심국가로 자리잡기위하여 정부는 우선 국내개혁을 서두르고 지역, 집단및 기업단위별로 세계화속에 뛰어들어 전선 없는 무한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강원도는 어떤것이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위한것이고 또 무엇이 경쟁의 상대적우위를 차지할수 있는것인가 ? 라는 이슈를 찾아내어 그곳에 모든 정열을 쏟음으로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개발할것인가 ? 어떠한 사업이 도민

들의 소득과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 가능성은 강원도의 여러가지 여건과 입지조건등으로 비추어 볼때 관광산업의 육성에서 찾아볼수있다. 관광산업이야 말로 가장 빠른 경쟁적 우위를 점 할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기대로 보아 다가오는 21세기는 강원도 관광산업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으로 부각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같은 시대적인 요구와 세계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맞는 강원도 관광의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강원도의 관광을 조명하고 한단계 끌어 올리고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본 연구는 상기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이론과 관련된 각종사례들을 고찰함으로써 문헌적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병행된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의 관점에서 연구 되어진다. 첫번째는 강원도에서 수립한 장기관광종합계획을 분석 검토하는 단계이고 두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광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다.또한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국민정서적 변화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예상하기 어려운 각종변수들에 의한 시각의 차이등에 대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본 론

1. 江原觀光에 관한 考察.

1) 既存의 觀光開發政策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정책은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을 거쳐 예산과 규모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지개발에 투자효율이 높은곳, 지역간 우선순위가 높은곳, 그리고 지역간 균형적 배분, 자원의 활용여건,관광지 개발의 용이성등에 따라 집중 개발하여왔다. 그러나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바뀔수도 있었다.즉,관광지 개발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국민관광지,지정관광지등 으로 구분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개발하기

도 하고 수요,공급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관광개발을 해왔다.

관광개발의 재원에 있어서는 국세,지방세, 또는 목적세, 특별기금등으로 조달되며 이 재원으로 정책책임자나 정책추진자들의 개발목적에 따라 투자되었다.

강원도는 지형, 지질이나 입지조건과 그리고 국가의 국토개발이라는 균형적 안배차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타산업의 육성보다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수 있기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나 아직까지는 면적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시대에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경쟁력있는 우수한 사업을 집중개발하여 투자하므로서 효용성을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이에대한 연구가 많았었다.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경쟁력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또 이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는 상당히 저변 확대되고있다.

오래전 부터 강원도를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도민들의 공감대는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화 하겠다던 1970년초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어왔다.이와같이 강원도민이 관광산업에 많은관심을 갖는 이유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를 들수있다.

첫째,강원도의 지형,지물이 관광개발여건의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뿐 아니라 입지조건 및 관광여건,그리고 환경까지 타 시,도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으로 보며

둘째,강원도의 산업구조와 인구분포가 타 시,도에 비하여 열 약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수있는 방법은 3차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지역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경제발전단계에서 보면 1.2차 산업이후의 3차산업으로서 고도소비가 이루어 지는 산업이라고 불리운다.199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 7,400 이 되면서 해외관광이 활발해지는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계층과 계급간에 소득의 배분이 불균형적으로 편중되어있던 시기이므로 해외여행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매우 왕성한 관광활동을 보이고 있는것 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관광개발투자를 보면 국비와 민자부문으로 구분된다.즉 도로나, 상,하수도, 공항, 항만, 철도, 통신,주차장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적음으로서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기반시설 즉,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주로 국비인 정부투자의 몫이 되지만 상가나, 숙박시설, 휴게시설, 식사시설, 안내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적고 투자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이용시설인 상

부구조(Superstructure)에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많아진다.이 같은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과 많은 시간이이 소요된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에 해당되는 공공사회 부문에 기반시설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원도는 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 밀리고 안배적 예산배정차원 마저 빠지게 되므로서 그동안 관광개발 기반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열악한 기반시설환경은 민간자본의 투자를 기피하게 되므로서 더 이상의 개발이 안되고 한동안 관광개발의 담보상태가 계속되는 한계성을 보였다.

그리고 강원도의 행정책임자의 관광개발 의지의 결여와 관광정책추진부족이 더 이상의 관광개발이 안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관광개발은 정부의 많은 관련 부서간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한다.그러나 각부처에 사무분장되어 있는 관광관련 업무들이 부처간 의 이해와 해석의 불일치등으로 인하여 처리에 많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즉,관광에 관련된 부처인 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교통부,문화부,체육부,환경처등의 부서들이 사안별로 업무처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의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조치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광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는 있으나 관광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가 중요사항으로 부각되면서 관광개발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등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의 관광개발은 법과 제도속에서도 어려운 문제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더 큰 장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잦은 자리 바꿈이었다. 중앙집권적 제도하에서 지방자치장은 중앙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자리가 바뀌었다.

이러한 책임자의 자리 바꿈에 따라 등장하는 정책과 역점사업의 변화가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가장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2. 江原觀光 開發方向

1) 社會間接施設擴充.

강원도는 1988년 12월 국토개발연구원에 “강원도장기개발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주어 1990년 4월3일 1차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교통망은 강원도가 오는 2001년까지 국.지방도를 완전 포장하고 현재 H 자 형의 간선

교통망 체계를 『用』 자형으로 개편하고 이를 고속화하여 지역간 및 지역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기본골격이다.

또 장기개발전략은 동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강릉, 설악산, 금강산의 연계관광을 도모할 수 있고 국토의 순환고속 도로망이 구축되며 경주-설악산 관광권이 연결됨으로서 동, 남해안 공업벨트와 동해산업 기지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철도, 항만, 공항시설로서는 총연장 240 Km의 동서고속전철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정부의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에도 포함되어 있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동 개발전략 기간중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철도분야의 전철계획은 영동선의 일부(영주-철암) 구간 85 Km, 경춘선의 일부구간(도농-춘천) 87.7 Km가 설치키로 되어있다.

항만시설 확충은 북방교역의 기능이 확대 되는 2001년에 동해의 물동량이 1천8백 41만t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시베리아 및 북한 개방화에 따른 전진기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하역능력은 2천만t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안벽 1천4백 14m와 방파제 5백70m를 축조할 계획이다. 속초항은 북한과의 금강산 관광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어항기능 이외에 여객기능까지 추가수행 할 수 있도록 3천-5천t급 여객선의 접안부두를 신설할 것이며 청초호는 수로를 개설해 어항과 관광위락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한다.

공항시설은 도내 항공수요는 지난 7년간 (80-87년) 연 평균 42%라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점보제트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갖춘 새로운 영동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했다.

2천년대 강원도의 산업진흥목표는 「첨단화」, 「무공해화」를 통한 농공병진기반의 구축으로 도 전역을 『관광 휴양지화』하여 국민휴양지로 정착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 2000만명의 관광객을 4000만명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고 있다.

2) 多樣的 觀光開發

강원도관광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토 공간상 동, 북부에 편재되어 있다는 입지적 조건과 동해안과 춘천 및 철원지방에 몰려 있다는 여건이 관광객의 접근성과 개발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악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자연자원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지 못한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 불량할 뿐 아니라 관광객의 일시적 밀집현상이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량한 접근성은 서울, 부산 등의 주요 관광시장에서 볼 때 어려운 관광루트가 되므로 타 지역과의 비교 우위에서 불리한 입장이 된다. 이것은 불량한 도로망과 다양하게 개발 안된 관광루트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전 국토가 관광지가 되는 여름철 관광에는 강원도의 경우 전체관광객의 46%가 동해안에 집중됨으

로서 나타나는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관광행태는 강원도의 관광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즐기는 관광』이 아닌 「보는관광」위주의 관광객의 행태는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이 안될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관광지출과 직결됨으로서 지역민의 소득과 연결이 안되고있다. 관광지내의 관광시설과 사업투자에 있어서는 지역민의 자본력빈곤으로 인한 투자기피는 외지자본을 불러들임으로서 관광개발로 인한 투자효과는 지역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의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

“장기개발전략 계획안”은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서 강원도의 관광개발을 국민여가 지대로 계획되어 있고 추후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영동국제공항,동서고속 전철건설등이 이루어진다는 핑크빛 기대속에 실현이 된다면 우선 관광지에의 접근성이 양호해 질뿐만 아니라 더욱더 북한,소련,일본,등과의 경제교류까지 활발해진다고 가정할때 관광객의 급증은 당연할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장기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첫째. 체류형,4계형 국민관광권을 조성하며 「머무는 관광」과 「4계형」을 위하여 자연감상위주의 「정적관광」을 하이킹,드라이브,골프,승마,스키,윈드서핑등 「동적관광」으로 전환하고 스키장증설로 동계휴양을 활성화하며 도내관광 일주 관광루-트화를 하기로했다. 둘째. 자원특성별 관광휴양권의 조성으로 4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춘천권」은 수도권주민의 『가족주말휴양지』와 전국민의 『안보교육장』으로 특화개발하고 「원주권」은 수도권및 중부권주민의 『가족주말휴양지』로 육성하며 「속초권」은 국민의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국제관광기능지』로 하였으며 「강릉,삼척권」은 청소년의 『현장교육장』과 국민의 『가족주말휴양지』화 하기로 개발계획을 세웠다.세째. 주민소득 제고를 위한 관광개발의 방안으로 지역소득과의 연계를 위하여 관광개발시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자본 참여를 보장하고 토지소유주와의 합동식 개발을 유도하며 「관광산업 지원센터」를 설립,관광개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또 관광사업장에는 지역주민의 고용을 우선하도록 지도키로했다.네째. 수려한 자연경관의 항구적보전을 적정개발 로 설정하고 있다. 「강원도장기개발전략」계획 보고서는 이와같은 산업진흥과 관광개발이 실현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의 93% 수준인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오는 2000년에는 전국평균치와 같은 1만6천8백70 달러에 이를것으로 내다보고있다.

3. 江原觀光 開發戰略.

1) 巨視的 開發戰略.

관광정책은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이 총화 단결을 할수 있어야 한다.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지방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중앙의 사정에 맞추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행하여진 상의하달식 정책결정들은 특수한 지역실정을 감안치 않은것들이 상당수였다.

강원도는 지방재정 자립도면에 있어서도 타시,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고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어 개발여건이 매우 불리하다.잔류인구보다 이동인구가 많아 산업구조가 취약할 뿐 아니라 면적의 80%가 대부분이 산악과 계곡을 이루고 있어 도시로서의 개발여건으로는 부적당하다.관광개발의 호조건인 산악과 계곡도 자연환경보호지역,수자원보호지역,산림보호지역,군사보호지역,등으로 묶이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그동안 발전이 침체되어왔다.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는 인구가 점점 감소 (1985년 강원도의 인구는 172만6천명에 비해 1990년에는 159만2천명 으로 7.7%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그이후 동 계획서는 2001년 강원도 인구수를 1백48만4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음.)됨에 따라 더욱더 취약상태를 가중 시키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타 시,도보다 훨씬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개발로서의 부 적합성,지역자본의 취약성, 산업구조및 취업구조의 취약성, 인구의 감소 ,70%의 산악등의 불량한 여건들로서 이루어진 강원도는 제 2의 도약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시도해야 할것이다.

첫째. 강원도의 관광개발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이어야 한다.

강원도의 대부분의 관광자원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이므로 자연자원과 관광산업을 고소득 첨단산업과 연계시켜 지역별 관광단지화 해야한다. 이러한 자연관광자원을 최대로 활용함으로써가치가 높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고소득 자연고산토속식품등을 개발하여 지역소득 및 주민소득과 연계시킨다.(스위스의 시계, 일본의 카메라및 전자제품,등).이같은 부대사업의 개발은 그다지 많은 제원을 필요치 않을뿐 아니라 강원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사업으로 본다.그리고 반도체나 일부 첨단산업의 유치는 노동력을 그다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개발과 병행하여 육성한다면 가장 적합한 산업이 될것이다.

둘째. 강원도는 관광산업을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하다.

사회간접시설인 도로,항만,철도,공항,및 상하수도,등의 기간시설은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투자효율성 원칙에 따라 지역여건이 우수한 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왔고 지역여건이 나쁜 강원도에는 안배적차원에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 한마디로 소홀히 한것만은 사실이다. 남북교류가 가시화 되고 소련,일본,중국을 잇는 동북아의 환 동해권 경제블록화 형성이 이루어 질때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있어야 할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특별 지방세를 신설하여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세째. 지속적이고 연계성있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관광개발공사”을 설립해야한다.

1970년 이래로 강원도는 계속 관광개발만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2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이다.실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재원부족과 각종 제재에 묶인것도 큰 요인이 될수도 있지만 관광개발을 지속성있고 연계성있게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었던 것이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도 관광과는 정책집행 부서로서 행정적인 업무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 행정기관은 기획, 감독, 지원,보조 업무만을 전담하고 관광개발이나 진흥업무는 관광개발공사에게 맡겨 지속적이고 연계성있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138조(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및 공단의 설립)에서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칭 “관광개발 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이 공사에서는 장,단기 종합관광개발사업까지 주도 해야한다.

넷째.향토기업육성과 양호한 외지 기업을 유치하여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관광객이 소비하는 돈은 그지역에 오래 머물어 있어야 승수효과가 높아진다. 그들의 소비한 돈이 즉시 외지로 나가게 되면 경제적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자본인 향토기업을 많이 육성하여 승수효과를 증대시켜야 할것이다.그러나 워낙 규모가 큰 사업들은 외지기업에 맡길수 밖에 없다.무한정 방치하여 지역소득과 연계시킬수 없다면 이 또한 자원의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이와같이 기업들이 짜임새있게 되면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관광시장 에서 전국단위의 관광시장으로 전환하여 시장다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관광객이 즐길수있는 위락단지는 목적성이 뚜렷하고,매력이 월출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개발되어야 만이 고소득을 올릴수 있을뿐 아니라 타지역과의 경쟁력에서도 이길수 있다.시설을 고급화함으로써 관광객계층별로 차별화하여 기존의 관광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다섯째. 지방세원확보를 위하여 일부국세의 전환및 자원세,수세를 개발해야 한다.

관광개발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된다.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해야하는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투자부문 특히 허부구조 (Imfrasturcture)인 도로망, 통신, 상하수도, 전기,등의 확충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국세중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가능한 세원은 전환하므로서 실질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개발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로 징수가 가능한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증대토록 한다.

특히 강원도는 자원세, 수세, 관광세등을 신설하여 활용하는것도 바람직 하다고 하겠다.

2) 微視的 開發戰略.

① 觀光 需要 戰略

중앙집권제나 지방자치제에 관계없이 관광수요에 있어서 큰 변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위하여 마련해 놓은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많아질것이고 기타 홍보활동을 통하여 관광의 질적향상을 가져올것으로 보며 관광객들 또한 관광소비는 증가될것으로 본다.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달러인 1980년대와 4-5,000달러인 1990년대, 6,000-1만달러가 예상되는 2,000년대의 관광객의 의식구조및 라이프 스타일 (Life-Style)은 사뭇 달라질것이다.과거의 관광객의 행태는 친구,직장동료,등의 친목의 관광행태가 대부분이 었으나 최근의 관광행태는 개인중심,또는 가족중심의 행태로 바뀌어 가고있다. 이들의 행태는 개인중심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실리추구의 관광으로 변하고있다.이같은 관광의 흐름으로 보아 관광편의및 위락시설의 공간배치도 동적에서 정적관광시설로 전환되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의 관광시장은 지금까지 수도권지역이 주시장으로 자리를 유지하여 왔으나 다양한 도로망의 개통과 자가용의 급속한 보급으로 전 지역이 관광시장화로 다변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중도시권의 관광객들도 상당히 증가되고는 있으나 당분간 수도권관광시장은 주시장으로서 변함은 없을것이다. 2,000년대 이후의 관광수요시장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상당한 다변화를 이룰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증대된다면 이에따른 금강산개발과 북방정책의 변화에 따른 동해안 항만확충,중국의 개방화에 따른 동해안 공항확장,동서고속 전철개통에 따른 수도권 관광객의 대이동등으로 강원도의 관광은 질적,양적면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것이다.

그동안 강원도의 관광객은 국내관광객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이러한 여러변화가 가지적으로 나타난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수용태세도 달라져야 할것이다.

관광수요에 대비한 자자제시대의 관광발전전략은 관광객 소비와 관광객 증가와 지역주민의 세금과도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지방 재정과도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으므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광객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강원도민의 관광요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② 觀光企業 發展戰略

첫째,도내 관광기업들은 무한경쟁을 위한 장 단기 기업발전전략을 세워야한다.

기업의 궁극적목적은 이익 극대화에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활동은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의 효율성에 있다. 최근의 관광기업은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도산직전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WTO 체제가 자리잡아 가면서 서비스부문도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국내관광시장을 잠식케 되면 우리관광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에 따른 관광기업들은 장 단기 기업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관광속박업의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투자증가가 자금압박을 가져오고 종업원 봉급마저 높아지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 지고 있으며 관광교통업 역시 신 차종 도입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고 계절적,추세적 수요변화에 뚜렷한 대처 방안이 없어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고전을 면치 못할것으로 본다.

교통업과 여행업은 관광객 공급을 필요로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경영합리화를 꾀하고는 있으나 우루과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선결과제이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소규모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기구의 개편이 있어야 할것이다.세계시장의 경쟁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선 관광산업의 규모자체가 대형화 되어야 할것이며 관광기업 또한 자연히 현재의 중소기업의 형태에서 점차 대형화로 탈바꿈이 이루어 져야한다. 북방정책과 남북교류에 따른 소련,중국,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될것으로 보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기업들의 정비 또한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본다. 이에따른 도내 관광기업들의 장단기 기업전략이 있어야 할것이다.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외국의 서비스업종의 진출을 대비키 위한 국내기업들의 체인망 구축,새로운 패키지투어(Package Tour)상품의 개발등 다양한 여행상품이 새로운 신제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합리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도내 기업들은 우선 수도권의 관광기업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비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당부문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관광 홍보 부문에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동원하여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관광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안이한 경영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모든 기업 전반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기업경영 방법을 찾아야 할것이다.

강원도의 관광기업의 소유주 상당수가 외지에 연고를 두고있다. 향토기업들의 관광수입은 대부분이 지역 소득과 직결되지만 외지인소유 기업의 관광수입은 타지로 반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과거에도 자주 거론된적이 있었고 지자체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이문제에 관심이 높아질것으로 본다. 즉 관광기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이 타지로 반출됨에 따라 나타나는 재투자의 손실 등이 지역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것이 가장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그렇다고 지역자본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무조건 반대만을 할수는 없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채용의 의무규정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우선적 구입,토지의 이용에 따른 임대료의 저변 확대의 조치를 강화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2000년대의 강원도 장기개발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도민들의 자본력만 으로는 기업확대및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본 유치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수있는 관광요금과 가격의 안정화,신용제도의 정착및 질적,양적 서비스의 개선등을 통하여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기업경영상 지출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부분이 인건비이다. 앞으로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력에 의존한 경영방식에서 빨리 탈피하여 기계화,첨단화에 의한 기업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특히 강원도는 인구가 점차 감소되므로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모든분야에 걸쳐 어렵고 힘든 노동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일찌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딪쳐 단순한 서비스는기계에 의한 셀프서비스로 바꾸었다.

(호텔의경우: 음료수,룸 서어비스 등의 일부기능.예약,모닝 콜,경비 등은 기계가 수행함.)

셋째. 종합적인 관광정보와 광고,예약등을 관장하는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과거에는 강원도를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였지만 이제는 적극적

인 유치활동이 없이는 경쟁력에서 이길수 없다.여러가지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하여 잠재적인 고객을 찾아야 할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특히 북방정책과 남북교류등을 예상해볼때 사전에 충분한 종합적인 기능과 기구를 분석하여 이를 조정할수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빠른속도로 정보화사회로 바뀌어 가고있다.종합적인 정보교환이 없이는 기업경영이 어렵게 될것이다. 개개인의 기업들의 정보를 활성화하고 교환하기위해서는 관광통합센터 내지 종합예약시스템의 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지자체시대에 들어서서 부합될수있는 도세의 확장,세원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합적인 광고활동, 각종홍보활동을 전담할 자치기구의 등장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

(예: 강원도관광협회를 확대 개편하여 이러한 역할을 담당토록 할수도 있다.)

③地域別 觀光開發戰略

지금까지 고찰한바와 같이 강원도 발전의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하면 강원도를 살기좋은 도로 만드는가?”에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여건과 입지조건으로 봐서 발전의 기본원동력은 관광산업의 육성이라고 본다. 주지한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승수효과가 높다는 경제적효용성과 지역성에 따른 투자대비 효율성이라는 측면등을 고려해볼때 강원도에서는 관광산업 이외 다른 선택은 없을것이다.지역별, 시, 군 단위로 자역실정에 맞는 관광사업과 관광지 개발을 하여 지역소득과 연계시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강원도에는 지역마다 개발여건이 우수한. 자연자원이 너무나 많다.민관이 합심하여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강원도는 인구의 감소 ,수도권 상수도원 으로서의 개발제한, 각종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개발제한, 지자체 실시에 따른 열악한 재정문제등을 고려해볼때 관광산업의 육성이 아닌 다른선택은 없다고 본다.

분권화된 지방자치제 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부문의 업무나 권한이 중앙정부에 남아있기때문에 개발의 난제는 있지만 그래도 도정책임자나 정책담당자는 『미래의 땅』이아닌 『오늘의 땅』이 되기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한다.

Ⅲ. 結 論

지금까지 강원도는 열악한 관광환경하 에서도 꾸준히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 투

자하여 왔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면적에 적은재원의 투자로 인하여 기대에 못 미치는 관광개발이 되었다.

산악과 계곡등으로 자연적 관광자원이 대부분이 강원도 관광지는 타 관광자원의 개발보다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지자체실시로 인하여 과거보다는 도민들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민들의 의지만으로 급격한 강원관광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면 아마도 10년뒤에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는 옛부터 수려한 산림자원, 수자원 풍부하여 금수강산이라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관광산업이 이곳에 정착 될것이고 이 자원이 강원도를 풍요의 지역으로 만들것이라는 선조들의 선견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책임자는 아직도 중간수준에 머물고있는 강원관광을 한단계 올려놓을수 있는 원대한 마스터 프랜을 가지고 관비는 물론 민자까지도 끌어들이 관광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강원도의 관광자원은 개발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될 수있는 잠재력이 있다. 최대의 효용성과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있는 전략하 에서 강원관광을 창조해야한다.

강원도 관광개발전략은 과거 중앙집권하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여 졌던 관광개발을 이제는 주민, 도,시,군,기업,관련단체들이 서로 책임을 나누어가져 협조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에 앞장을 서야하겠다.

참 고 문 헌

1. 한국관광개발연구원.“한국관광년감” 1993
2. 강원도.“강원지역경제의 특성과 개발방향” 1988.
3. 강원도. “강원통계연감”.1992-93.
4. 강원관광개발학회.“관광개발논총” 1992-94.
5. 강원대학교부설 경영연구소.“제1차 춘천시 종합개발 5개년 계획” 1992
6. 강원대학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1992-93.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89
8. 교학사 “교육법전 <지방자치법>” 1994
9. 안중윤.“관광법규해설”일진사“ 1993